

여야, 조기 대선 겨냥 정국 주도권 잡기 '본격화'

민주 "진보·중도층, 정권교체 우세" 이재명, 문재인 예방... '통합 행보' 국힘 "이재명은 안된다" 설 민심 내달 당정협의 '맞춤형' 중도 공략

옛새 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민주당의 정권 교체가 우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간담회를 열고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며 "현장 여론과 여론조사를 종합한 설 연휴 민심을 보면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구속 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며 "국가 위기에 위기 극복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요구했던 과거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감안할 때도 국가 위기인 현재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되어 상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계엄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망상성과 폭력성이 드러난 전광훈식 극단주의와의 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력을 민생 경제회복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을 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킬 보다 좋은 민생정책을 내놓으며 정치를 보다 정상화하는 국면으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흔히 얘기하는 조기 대선 차원은 아니지만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경제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통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이후 6달 만이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 추진 등 대외 공세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전선을 치며, 이재명 대표를 집중 견제하는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설 민심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정의롭고 단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강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설 명절 현장 민심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에 권한대행 탄핵까지 감행하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노였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외연 확장에 '반이재명' 카드가 가장 효과적이란 판단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또 설 민심은 "국정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회복도 강조했다.

오는 2월 4일과 7일 열릴 예정인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선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과 비교되는 맞춤형 민생 대책을 통해 중도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춰, 당 안팎의 보수진영 내 잠룡들도 정치적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늘리며 조기 대선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문형배-이재명' 친분설 주장에 "탄핵 불복 과정"

정성호 "문 재판관 모욕 중단해야" 여 "공정성 훼손 책임있는 태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법관으로서 엄정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판사로서 거처온 과정을 본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문 재판관에 대한 모욕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그는 "사법연수생 일부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자는 모임이 있었다"며 "그때 같이 모여 공부했던 사이인데, 문 재판관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 정치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메시지는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고 있다"며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은 불복할 수가 없다. 결국은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선으로 가지 않느냐"며 "그런 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구도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현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문 대행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 제안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제2의 반민특위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를 구성해 내란세력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역사에 낱알이 기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과 그 일파는 뻔뻔하게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때 역사가 전진하고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견인하겠다"며 "내란은 물론 김건희 특검에 박차를 가해서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친명계, 이재명 '일극' 비판 비명계 달래기

조승래 "당 생태계 분열 방향은 곤란" 정성호 "김경수, 당 승리 역할 고민" 박용진 "다음 정권 민주?...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내부에서 갈등하는 양상이 도출될 게 없다는 판단 아래, '견제성 달래기'를 하는 모양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에 나와, 비명계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민주당이라는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양성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당의 주요 정치 자원들이 적어도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명계 구심점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향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정성호 의원 박용진 전 의원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다. 우리 세력이 다 결집돼서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그런 점들을 풀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김 전 지사도 결국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명계를 향한 견제도 시작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분명한 비전과 가치 노선이 있어야 되고 이에 동의하는 당원·지지자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김 전 지사는) 지난 대선 이후 한 때 구속돼 있었고 이후에는 외국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로 당이 통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날도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용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나친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 몸에 밴 선민

의식,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잘난척. 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민주당 차지가 될까"라며 "지금 당에 낡은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재명 한 명 탓하는 것으로 쌓여 있는 문제에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자꾸 질문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답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당 쇄신을 주문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이 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지 못했던 '비명 횡사'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화와 타협을 가깝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며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을 고리로 비명계가 규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